

■ 그림 여행



팬지가 있는 정물화

(Still Life With Pansies c. 1874)

앙리 팡탱 라투르 (Henri Fantin-Latour 1836 -1904)  
(캔버스에 유화 47 cm x 56.5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앙리 팡탱 라투르는 프랑스 화가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배웠고 사실주의 화풍의 대가 쿠르베의 제자였다. 정통으로 사실주의 그림을 공부했고 당시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과도 어울렸으나 정작 자신은 인상파도 아니고 사실파도 아닌 온건한 보수적인 그림을 그렸다. 특히, 꽃이나 과일이나 나오는 정물화를 평생 그렸다. 젊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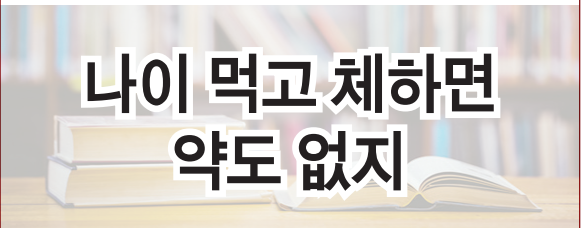
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 휘슬러의 도움으로 영국 화단에 알려졌다고 한다.

영국 화단에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린 꽃 그림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정물화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팬지 그림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보았는데 마치 팬지 꽃잎 위로 금새라도 이슬방울이 굴러 떨어질 것처럼 영롱했다. 손을 뻗으면 부드러운 꽃잎을 만져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으로 단련이 되어 있는 현대인의 눈에도 그토록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람들은 더욱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다. 과연 사실주의 대가 쿠르베의 제자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꽃 그림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고, 라투르는 그림을 그리며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예쁜 꽃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자화상이 고뇌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안해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는 커녕, 불안과 회의에 깊이 물든 어두운 표정이다. 생각해 보면 꽃 그림은 그저 화가의 생활 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실제로 그는 '바티볼의 화실'이나 '틀라크르와를 애도함' 등 본격적인 집단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의 꽃 그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매우 훌륭한 그림들이었다. 라투르가 정말 그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진지한 그림이었을까? 정물화가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평생 거의 꽃 그림만 그리고 살았던 화가의 가슴에 무언가 남모를 동경과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본다.

《김동백》

■ 신간



어느 날 나이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마음은 아직 십 대 후반의 어느 지점을 헤매고 있는데 몸은 어느덧 나이를 먹었다. 시간의 힘과 시간의 무상함을 무엇보다 나이에서 실감한다. 누구나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먹고 있는 나이, 어떻게 하면 체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

<나이 먹고 체하면 약도 없지>는 '나이 먹는 일'에 관해 탐구한 유쾌 발랄 생활 에세이다.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극본을 쓴 방송작가 겸 소설가 임선경이 경쾌한 일상과 몽클한 인생사를 발랄하게 풀었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임선경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 260쪽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evergreenschool.com

SCHOOL OF EVERGREEN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714.670.9687